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적비와 명제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시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평양약전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립된 약전기계제품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현실에서 큰 은

을 나타내고있으며 수요도 대단히 높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는 약전기계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제품들에 대한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 제품개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새롭고 현대적인 약전기계제품을 연구개발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합치고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새 제품연구개발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주제적인 관점과 립

장에서 기성기술문헌에도 없는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새 기술의 창조자, 개척자가 되어 최첨단약전기계제품개발과 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조종간을 역세게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오른 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훈련명령관철의 길에서 런마해온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찬바람이 불어치는 훈련장에 오래도록 서서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함로에 비행운을 새겨가고있는 비행사들의 훈련을 주의깊게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이 모두 녀성들인데 불리한 기상조건속에서도 전투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한다고,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좋다고, 당의 의도대로 높은 비행술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하시였다.

녀성비행사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비행훈련을 힘있게 벌려 하늘의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령공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

고있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가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비행훈련지도를 마친 다음 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역세계 자라난 녀성비행사들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녀성비행사의 노래》를 창작하여 부름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사들의 침실, 비행조종련습종합강실, 식당, 부식물창고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과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에서 정치사상교양과 문화정서생활 및 후방시설들을 그쁘히 갖추어놓고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부부비행사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보위가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부부전투비행사들을 찾아볼수 있을것이라고,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애국자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워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미국은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우리의 전략군부대들은 화력단위별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켓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발사된 로켓들은 발사지점으로 부터 설정된 동북방향으로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비행하여 정해진 목표수역들에 정확히 도달함으로써 일찌기 이루어지지 않았던 최상수준의 명중확률을 과시하였다.

특히 로켓발사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비행궤도와 목표수역에 대한 사전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세운데 기초하여 진행된 우리 전략군 화력단위들의 이번 훈련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물론 국제항해질서와 생태환경에 사소한 영향도 줄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다종다형의 첨단로켓들의 성능이 남김없이 검증된 이번 훈련은 날강도 미제가 온갖 추종세력들을 끌어모아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기를 부리고있는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끄떡없이 병진로선관철을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 천배해 주고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풀수에 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로켓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높이 솟구쳐오르는 그 순간부터 악의에 찬 비난에 매달리며 못되게 놀아내고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부득불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무려대고 우리를 걸고들기 전에 도발의 개념이나 정확히 아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레의없이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 우리의 령도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정의의 자위적행동이다.

우리 전략군의 이번 로켓발사훈련 역시 레의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저장도도발》이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요 하는 당치 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우리의 로켓발사때문에 큰 피해라고 본듯이 아부제기를 치고있다.

그때 우리가 발사한 로켓의 파편 한조각이라도 미국본토나 주변나라들에 떨어지고 미국합선이야 비행기가 자그마한 흩집이라도 났단 말인가.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 손가락이 깨끗한가부터 먼저 보라고 하였다.

굳이 도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주동이 되어 우리를 겨냥하고 벌리는 강도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며 국무장관 케리와 같이 그 누구를 《가장 폐쇄적인 나라》, 《사악한 곳》, 《악의 나라》라고 헐뜯는 비열한 망발이다.

제방에서 진행되는 정의로운 자위적훈련을 《도발》이라고 매도해대는것이 파렴치한 미국식판단이고 남의 나라 땅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감행하는 저들의 침략전쟁행위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며 《넉넉적》이라고 정당화하는것이 바로 칠면피한 미국식기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걸어오는 무모한 도발이 도수를 높게 되면 우리 방어행로켓들의 훈련발사가 순식간에 가장 위력한 공격형로켓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로켓발사를 구실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무없는 구실을 붙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고 격화시켜왔다.

무장간첩성과 정찰기들을 빼없이 우리 나라 령해와 령공깊이 들이밀어 준전시상태를 빚어낸것도 미국이고 전연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계획적인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는것으로 이 땅에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최근에만도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미사일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유엔 《제재》 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는것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하였다.

이번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구실로 그 무슨 《이란식제재》요, 《보타 철거한 봉쇄》요 하면서 또다시 긴장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길에 들어서려고 획책하고있다.

여기에는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북남대화와 조일접촉의 기미가 나타나고있는데 대한 미국의 배아픈 속내도 크게 작용하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흐름을 강도높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가로막고 또다시 남조선지역을 핵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살인무장장비전시장으로 만들어놓아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켜보려는것이 심술극은 미합중국해방군들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미국은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발사훈련을 구실로 침략전쟁연습의 도수를 높이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가 더는 통할수도, 묵인될수도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켓발사훈련을 계기로 우리 핵문제까지 집요하게 걸고드는 어리석은 꾀

변을 함부로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로켓발사뿐 아니라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북핵포기가 선행되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느니, 《북이 먼저 움직여야 미북대화도 있고 미북관계도 있다》는 등의 요설을 내뿜고있다.

이것은 한갓 무지이기 전에 황당무계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정》을 바라고 보유했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강요로부터 우리 민족모두를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보검이다.

그 누가 인정하면 존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없어지는것이 우리의 핵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시비를 하든, 인정을 하든 우리에게 대한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더우기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선에 현혹되어 정당당한 로켓발사훈련을 중지하고 자위적인 핵역력을 포기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무엇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중요와 보복의 총검을 버리고있는가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위적인 로켓발사훈련을 걸고들면 들수록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중요와 분노는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맹정하게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주제103(2014)년 3월 5일 평양

##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 《미국은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를 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마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조선의 전략군부대들이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켓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미국무

방향으로 안전하게 비행하여 정해진 목표수역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로켓발사훈련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로켓발사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중상감빠니야를 벌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비난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미국무

장관 케리가 조선을 《가장 폐쇄적인 나라》, 《사악한 곳》이라고 한 망발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도발이라고 하면서 그는 여기에는 최근 조선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북남대화와 조일접촉의 기미가 나타나고있는데 대한 미국의 배아픈 속내도 크게 작용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CNN》방송,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도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이날 우리나라를 수밀화, 원림화하기 위한 철도성립, 원림화, 농업원림, 각 도시,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열기모임과 나무심기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열기모임 진행,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나무심기에 참가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었다. 각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백화만발하고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러갈 애국의 일념을 안고 나무심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2일 식수절을 맞으며 중앙식물원 수목원, 만경대혁명사적지, 모란봉, 4월15일소년백화원 등 각지에서 열기모임들이 진행되었다. 모임들에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열기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모임들이 끝난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갖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 관목들을 정성다해 심었다.

본사기자



식수절을 맞으며 근로자들이 나무들을 심었다.

- 모란봉에서 -



# 3 월 의 봄 날 같 이 밝 고 환 희 롭 다

3.8국제부녀절이 오면 우리 여성들은 누구나 꽃속에 휩싸인다.

여성들에게 꽃송이, 꽃뭉음을 안겨주며 건네는 인사말들도 뜻이 깊다.

《부녀절을 축하합니다.》, 《봄날의 꽃처럼 항상 아름답길 바랍니다.》

정말 3월의 봄날같이 밝고 환희로운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다.

게절이 좋아서 우리 여성들의 삶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10년 단마르크의 수도 피렌하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대회에서 3월 8일을 전세계근로여성들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여성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나왔다. 그러나 너무도 굴곡많은 세파에 부대끼며 피눈물로 인생의 물결을 헤쳐나오던 우리 여성들이었고 세계의 여성들이었다.

사회적약자로서 당해야 했던 것은 천대와 멸시, 남존녀비의 봉건적질곡속에 열두차례마복을 눈물로 적시면서도 그것을 숙명으로 간주하며 살아야 했던 이 나라 여성들의 설움깊은 모습은 지나온 력사의 갈피에 아물수 없는 상처처럼 새겨져있다.

나라없던 민족수난의 시기 내인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외세의 악정과 봉건의 질곡속에 2중3중의 고통을 당하며 울음에서 서있는 《봉선화》와 같은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에 담아 구슬과 불려야 했다.

그렇듯 수난만던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시

여 비로소 극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보시고 그들을 내세워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여성중시정책을 받드시어 그들이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도록 하여주시었다.

여성들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야 조국이 힘차게 전진하며 어머니들의 세기적대업이 완전히 실현될 때 강성국가가 일떠선다고 하시며 여성들을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시대와 혁명의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여성중시의 사상과 령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 11월 16일을 첫 어머니날로 제정해 주도록 하시고 이날을 계기로 전국각지의 어머니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성대한 대회도 마련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건도 찍어주시었다.

예로부터 어머니사랑을 통가할 사랑은 세상에 없었고도 하 있었지만 어머니들의 천만고를 다 헤아려주시고 그들을 행복의 단상에 세워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닌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의 사랑은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창전거리살림집에 입사한 여성노동자의 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9월

## 인민주권을 반석으로 다지는 길에서

주체35(1946)년 10월이었다. 민주선거를 앞두고 각지 선거구에서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추천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안남도 강동군 삼등면(당시)을 찾으시었다.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는 그곳 인민들앞에서 수령님께서는 높은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찬성투표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민주주의의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앞장서서 인민들의 자기를 대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시었다. 여기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북조선에 창설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게 될것이며 민주주의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더욱

## 첫 선거의 날에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실시하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라고 하시었다. 이어 각계층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는 자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며 힘껏 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활은 그만큼 좋아질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외세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조국 땅에서 인민들이 자기의 대표를 선거하여 세우는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사는 새 조국을 건설할때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삼등면사람들의 선거열의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 대의원 후보자에게 바치신 한표

주체87(1998)년 7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하는 한 인민군부대의 선거장을 찾으시었다. 선거장에 들어서시어 군인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하신 그이께서는 부지각관들과 대의원후보자를 만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지난 시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에는 수령님을 모시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가서 로동자, 농민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하셨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부대에 와서 군인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한것은 처음이라고 하시었다.

## 합친것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었다.

나래에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자식 하나 키우며 드는 품이 좁쌀 한알을 실에 꿰는 품에 비해 오만공수라고 하였는데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 출중한 위인을 모셔 민족의 앞날은 밝다

조국을 찾는 내 마음은 항상 친정집을 찾는 딸자식의 심정이다. 이제까지 수십차례의 조국방문을 하지만 조국에만 오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도 좋아져 한 10년은 젊어지는것만 같다. 이번에는 평양성절을 맞으며 또다

시 조국을 방문하였다. 조국방문은 나에게서 인생체협의 좋은 계기로, 많은것을 배우는 기회로 되곤 한다.

나는 조국방문날마다 내가 체험한 이야기들과 하고싶었던 말들을 미흡하게나마 글로 적어본다.

## 사랑의 대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나? 내가 조국방문때마다 매번 던지는 물음이다. 막상 이렇게 물음을 새웠다가도 나는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곤 한다.

조국방문길에 우리는 문수물놀이장도 참관하였다. 하늘의 칠색무지개를 옮겨다 이리저리 엿갈려놓은듯한 형형색색의 물고기형태들, 아찔한 폭포우에서 떨어지듯 미끄러져내리며 터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와 함께 어울려 들려오는 파도수조의 유희찬 파도소리...

아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도 눈부신 황홀경을 세백에도 건설장으로 달려나 오군 했다고 이곳 지휘관들도 군인건설자들 누구나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건설장을 찾으시었다. 그날 짧은 시간을 갖게 많은 일을 했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로웠다. 이젠 사교가 많았다고, 이젠 사교가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로웠다. 이젠 사교가 많았다고, 이젠 사교가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로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었던 그날의 감격에 대해 교양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애들은 결코 부모없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천

## 조국의 힘, 밝은 미래

오늘 조국에서의 강성국가건설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로 되고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조국에서 벌어진 사변들, 눈부신 전변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아름다운 나라

내 조국은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러나 조국의 아름다움은 결코 산천경계에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창건 65주년이었다. 공화국 창건 65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나는 비행기 안에서 관광을 마치고 귀국할 때 로씨야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로씨야에 사는 해외조선공민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 조국은 정말 좋은 나라이다.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좋다. 이번에도 금강

##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민중부대를 시찰하시면서 부대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싸움준비로부터 군생활에 이르기까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에 해방적 후 백두산3대장군님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어 조국의 통일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는 력사적인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쉼터나무사업이든 사업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국도관리사업의 하나이다.

산지는 물론 거리나 마을, 공장이나 기관, 농촌, 교정할것없이 어디가나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을 비롯한 각 계층이 식수에 국성이다. 나무심기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민대동의 애국사업이든 사업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국도관리사업의 하나이다.

## 조국의 힘, 밝은 미래

오늘 조국에서의 강성국가건설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로 되고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조국에서 벌어진 사변들, 눈부신 전변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민중부대를 시찰하시면서 부대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싸움준비로부터 군생활에 이르기까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에 해방적 후 백두산3대장군님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어 조국의 통일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는 력사적인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쉼터나무사업이든 사업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국도관리사업의 하나이다.

산지는 물론 거리나 마을, 공장이나 기관, 농촌, 교정할것없이 어디가나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을 비롯한 각 계층이 식수에 국성이다. 나무심기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민대동의 애국사업이든 사업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국도관리사업의 하나이다.

## 조국의 힘, 밝은 미래

오늘 조국에서의 강성국가건설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로 되고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조국에서 벌어진 사변들, 눈부신 전변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잡들 줄 모르는 파도와도 같이 여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은 한밤에도 창조와 혁신의 열풍으로 세차게 훑어온다.

얼마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산디미처럼 쌓여있는 중앙부채들과 팔조공사가 끝난 건물들을 보시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이것이 바로 단속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로동당력사는 변혁과 창조의 시간으로 수놓아가는 군인건설자들, 이들의 심장속에 끓어오르는 기적의 열정을 창조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지난 1월 6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탱크시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오늘 자신께서 여기에 착안한것은 전국의 육아원, 예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

고 하시었다. 그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팔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기간 2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예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

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원수님께서는 육아원과 예육원의 아이들이 하느날같이 불이 오오동동하다고 하시면서 울해부드 그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시겠다고, 우리 나라에는 말이 많이 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었던 그날의 감격에 대해 교양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애들은 결코 부모없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천

만부모의 정과 사랑을 모두 합친것보다 더 크고 따라서 온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행복들이들입니다.》

아, 얼마나 뜨거운 절제위인의 인민사랑의 세계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크나큰 사랑은 기적을 창조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추운 겨울조건에서 건설을 진행하면서 예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우리들은 힘든줄을 몰랐다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먹일 물고기의 수량을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각하면 눈을 감아도 잠을 들 수가 없어 한밤중에도 이른

시면서 건설장을 바라보니 벌써부터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보는것만 같고 물고기떼가 기다리는 것만 같다고 호랑하게 웃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인민들과 아이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면 아직도 흥민지가 일고 바다바람이 세찬 건설장을 바라보시며 헌신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그려보시고 펄펄 물고기떼를 그려보셨겠는가.

지금도 육아원과 예육원을 찾으시어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을 후텁게 하고 있다.

일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부모모를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

바로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정으로 나라 인민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 그늘까지 말끔히 가져주는 태양의 빛발이 있어 이 나라의 집집마다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고 강산은 언제나 밝고 환희에 넘쳐있는것 아닌가.

이제 세상사람들은 새봄에 일떠선 1월8일수산사업소와 더불어 얼마나 전진같은 사랑이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가를 뜨겁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1월8일수산사업소는 길이 전하리라. 인민에 대한 가장 헌신적이며 마음 줄 모른다는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신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과 감격을.

지금도 육아원과 예육원을 찾으시어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을 후텁게 하고 있다.

일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부모모를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

바로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정으로 나라 인민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 그늘까지 말끔히 가져주는 태양의 빛발이 있어 이 나라의 집집마다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고 강산은 언제나 밝고 환희에 넘쳐있는것 아닌가.

이제 세상사람들은 새봄에 일떠선 1월8일수산사업소와 더불어 얼마나 전진같은 사랑이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가를 뜨겁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1월8일수산사업소는 길이 전하리라. 인민에 대한 가장 헌신적이며 마음 줄 모른다는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신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과 감격을.

본사기자 김강철

따뜻한 축복을 안겨주시분, 안해와 두 딸이 모두 교단에 서있는 교육자가정에 들리시어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라고 값높이 불려주시분이니 바로 이 나라 모든 여성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이 《그이 없인 못살아》라고 노래 부르며 따르고 받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이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사회주의의 비옥한 토양우에서 아름다운 삶을 향유하며 남성과 똑같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조선여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의 불행한 수난사가 지속되고있다. 전쟁과 내란에 시달리는 여성들, 현대판 성노예가 되어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강그리 유린당한 여성들이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

지난 2일 남조선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 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하루에만도 3건의 동반자살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꽃으로 피고싶어도 품어주는 토양이 없고 빛과 열을 주는 파사로운 빛발이 없어 지구상 곳곳에서 계속 되고있는 여성수난의 력사는 공화국의 품에서 누리는 우리 여성들의 행복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여성중흥, 여성중시의 정치가 펼쳐지는 곳에 여성들의 복된 삶도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민족의 태양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머니로 높이 모시어 우리 여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3월의 봄날같이 그토록 밝고 환희로운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1월8일수산사업소는 길이 전하리라

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인 인민군대에 조직적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던것이다. 바로 이렇게 되여 여기에는 인민군대가 책임지고 아이들과 로인들을 위해 건설하는 조선인민군 1월8일 수산사업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친적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그때로부터 한달을 가까이 하는 지난 2월 3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평양시의 육아원과 예육원을 몸소 찾으시었다. 이곳의 보육 및 교양조건

##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민중부대를 시찰하시면서 부대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싸움준비로부터 군생활에 이르기까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에 해방적 후 백두산3대장군님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어 조국의 통일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는 력사적인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쉼터나무사업이든 사업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국도관리사업의 하나이다.

산지는 물론 거리나 마을, 공장이나 기관, 농촌, 교정할것없이 어디가나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을 비롯한 각 계층이 식수에 국성이다. 나무심기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민대동의 애국사업이든 사업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국도관리사업의 하나이다.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은나라를 수림화하려고



#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자

## 민족이 바라는 통일의 길은 ...

지금 민족의 분열은 70년을 가까이 하고 있다. 외세가 강요한 이 비극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하기에 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사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 금강산에서 진행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그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했다. 상봉의 기쁨은 잠깐, 또다시 갈라져 기억없는 리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가슴속에서 한결같이 울려나오는 것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자》라는 말이였다.

민족의 최대속원인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는 데서 현시기 통일의 이정표와 통일위업 실현방도를 올바로 알고 통일대강들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통일은 도이철란드식 통일도 아니고 웬남식 통일도 아니며 우리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는 우리 식의 통일이다.

우리 식의 통일, 그것은 철두철미 자주적인 통일이고 공존공영의 평화적인 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분열은 외세가

강요한 것이다.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요인도 침략적인 외세의 간섭책동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철저히 민족자주적립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초래된 리별의 비극을 외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결정적 힘도 단합된 민족의 힘이다.

일제에 의해 40여년간의 식민지노예살이를 겪고 미국에 의해 70년간이나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 오는 외세의 집요한 간섭과 지배책동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떨치기 위해 통일은 결코 돈이나 경제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통일외의 리익은 민족의 자주적립과 자주적발전이다.

우리 겨레에게는 이미 세계 앞에서 천명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원칙과 방략이 있다.

원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혀준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힌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의 휘황한 대강이다.

민족의 속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우리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원칙과 과업, 그 실현방도들이 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자주통일의 대강이다.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끼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지침이 되는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평화변영을 위한 방도들을 밝힌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 데 대한 문제, 군사적대면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와 통일운동발전에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북남관계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북과 남 사이에 여러분야에 걸치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각계층 인사들의 대량 교류,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두터워졌다.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하늘과 땅, 바다길이 열리었

으며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오늘날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북남관계의 발전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변영도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조선민족은 자기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전진한 6.15통일시대를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통일은 말로써가 아니라 온 겨레의 거족적인 노력, 북과 남의 실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온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국통일운동의 초석으로 삼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야 맞겠다.

##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산물

얼마전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약 3년 4개월만에 북과 남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감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오래동안 갈라졌던 북남의 가족, 친척들은 서로 만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었으며 우리 민족은 결코 갈라져 살수 없는 한피줄임을 다시금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하기에 내외의 언론들은 수십여 년만에 만나 나는 혈육들의 정은 금강산에 키를 넘겨 쌓인 흰눈도 녹일만큼 뜨겁고 강렬하다고 전하였다.

이번 상봉행사의 성과적리행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로 이룩될 수 있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오래동안 갈라져 살아온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공화국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자주통일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여왔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왔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길에서 공화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적극적 통일노력, 북남의 합의에 의해 맺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은 신년사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

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며 이어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중대제안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신년사와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는 세기를 이어가며 지속되고있는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공화국의 단호한 결심과 불같은 통일애국의지가 어려웠다.

하기에 공화국은 북남고위급 접촉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남측이 접촉에서 제기하는 문제들도 아랑있게 들어주면서 귀중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게 하였다.

공화국의 대범하고 아량있는 태도, 뜨거운 정열에 조치가 없었다면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새해에 들어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새롭게 진척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수 없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시종일관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천명되어있는것처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서철수

## 민족의 꽃 통일의 꽃으로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여성은 생활의 꽃이고 가정의 꽃, 나라의 꽃이라고 사랑받아 울리는 노래는 가정과 사회의 큰꽃을 가꿀 수 있는 여성들의 미더운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아름답고 소박한 꿈을 안고 자식들과 남편들을 여섯하게 내세우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완만히 수행해가는 조선여성들. 이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서도 당당히 자기의 몫을 수행해왔다.

통일운동사의 갈라파다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한 여성들의 장거가 력력히 새겨져 있다. 그들속에는 분열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며 평양을 찾았던 남녘의 꽃나이가 대학생들도 있고 남편이 못다 걸은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이어간 인연도 있었다.

격동과 환희의 6.15시대에는 또 어떠한가. 북과 남의 여성들이 평양과 서울, 금강산을 오가며 손에 손을 맞잡고 통일을 갈라지던 자주통일의지와 단합의 위력을 과시하지 않았는가. 북과 남의 여성들의 애국적회합이었던 2002년 10월 10일 진행된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북남

여성통일대회》, 2005년 9월의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북남여성통일연대》, 2006년 3월 3일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남여성대표자회의》, 2008년 5월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북남여성대표자회의》...

그 나날들은 통일의 당당한 주역으로, 민족자주통일운동의 큰 력량으로 시대와 역사앞에 등장한 조선여성들의 장한 모습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려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온 세상에 과시한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다.

나라의 통일성업에 이바지하려는 조선여성들의 지향과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남조선의 서울에서 열린 《반전, 평화초보대회》에서는 32살의 한 평범한 여성이 태어난지 27개월된 아이를 업고 연단을 올랐다. 그는 관중을 향해 《우리 아이는 아직 전쟁이 무엇인지 심지어 싸움의 위력을 과시하지 않았는가. 아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아이에게 6.25보다는 6.15라는 민족의 약속을 우리 어떻게 잘 지키고 싶

는지를 평화로 지켰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현시기 북과 남의 여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의지인 것이다.

나라의 분열은 온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더해주고 있다.

민족의 한 성원인 북과 남의 여성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외세가 가져다 준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보다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통일의 한쪽수레바퀴를 맡고있는 여성들이 일떠설 때 그 위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 않다.

북과 남의 여성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가정의 행복과 자식들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는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주통일기판차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 통일의 길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기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꽃, 통일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어나야 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미국의 대조전적대시정책, 북침전쟁도발책동은 민족의 안전을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미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연습등으로 나라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미국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뉘니 하고 광고하고있지만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명백히 공화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북침예비전쟁, 핵시위전행이다. 이 연습에 참가한 침략군부대에 공화국북남부의 중요대상물들이 타격목표로 할당되어있고 이 연습체계안에서 계획된 대규모적인 연합상륙작전이라는것 역시 평양강점을 노리고있다. 엄연한 사실임으로 그것은 뚜렷이 실증된다.

미국의 광란적인 북침책동장난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핵

##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는 절박한 현실적 과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한층한층 호르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이제 60년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깰지 못했다. 오히려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조선적대결과 전쟁위협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로 이룩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더우기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군사적 긴장상태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근 70년간이나 지속되고있는 나라의 분열과 그리고 인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로 하여 우리 민족은 이 수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조국통일, 민족변영에 이바지되어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부들이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북남대결에 소모되고있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삼천리조국강토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변영을 이룩하자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피해를 입을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도 함께 될것은 삼천리강토이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결연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이듯이 이 땅의 평화수호의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이 내외호전분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게 지퍼올려야 한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반전평화의 열기로 들끓고 평화수호의 함

성이 높이 울려나와야 한다.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적호를 등을 돌리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적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미국도 결코 무사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굳게 단합하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할것이다.

진광혁



《야!-》 연을 띄우며 순백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의 모습. 추위로 아이들의 열면 모습에 풀이 죽은듯하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통일연, 창공을 휘가르며 추겨쳐오른다.

하나된 조국을 소원하는 겨레의 마음, 통일된 강산에서 춤추며 노래부를 아이들의 꿈 모두 담아내고 연이 날아오른다.

하늘로 훨훨 날아올라 통일조국의 연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울리는 아이들의 탄성이 하늘가에 메아리친다.

통일로 달리는 겨레의 마음이 연과 함께 하늘을 날으며 더더욱 뜨거워지는 것만 같다.

그때, 날아오는 민족의 마음을 합치고합치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앞당겨 이루어질것이다.

연아 연아 높이 날아라,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아름다운 통일조국의 모습을 그려주며 더 높이 날아올라라. 진눈까비 내리고 바람 세차도 겨레의 통일열기 담아내고 더 높이.

리경순

《정보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보원과 김(김정숙)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니 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있다.

이번에 적발된 김정숙이 반공화국종교행위와 유인람치행위를 하며 뿌린 엄청난 돈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이 아니라 정보원이 대준것

《부의 날조극》이라고 우려하는것은 그야말로 사기와 모략, 날조를 받먹듯 하는 남조선의 정보원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 정보원의 전진(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들이 발표한 각종 《간첩단사건》들이 고문과 위협, 모략과 날조로 조작해낸것들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진 현실은 정보원이 하는 말과 행동은 거꾸로 보아야 할 실을 알수 있다. 민심의 반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정보원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호를 역행하여 공화국에 대한 비방증상과 모략책동에 광분할수록 그것은 동족대결집단으로서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더욱더 폭로시켜 줄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통  
일  
연  
애  
날  
아  
라

## 숨길수 없는 모략집단의 정체

《정보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보원과 김(김정숙)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니 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있다.

이번에 적발된 김정숙이 반공화국종교행위와 유인람치행위를 하며 뿌린 엄청난 돈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이 아니라 정보원이 대준것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피해를 입을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도 함께 될것은 삼천리강토이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결연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이듯이 이 땅의 평화수호의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이 내외호전분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게 지퍼올려야 한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반전평화의 열기로 들끓고 평화수호의 함



# 북남관계개선을 차단하려고 발악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리영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와 기자가 나눈 대담

기자: 최근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관계개선의 기류가 흐르던 북남관계도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조선통일의 막대한 방해자가 아닌가.

리영환: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일제의 패망이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강점한 미국에 의해 수천년 동안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조선민족이 인위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38° 선은 철저히 미국에 의해 고안된 선이다.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백여 칸 이 원한의 분열선에 의하여 514개의 부락이 사라지고 8개의 군과 122개의 마을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강하천, 철도와 도로들이 두동강나고 우리 겨레는 민족분열의 가슴아픈 비극을 겪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

공갈의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조선전쟁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그해 12월 미국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러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대 형성》을 폭언했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조선반도에

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과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이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보냈다. 이렇게 되어 생겨난 수많은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오늘날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 살고있다.

기자: 미국은 지난 기간 북과 남사이에 화해의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그에 쫓겨 치며 집요하게 방해해나서지 않았는가.

리영환: 그렇다. 지난 70년간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해 북과 남, 해

결을 적극 사육해왔다. 그런가하면 점입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악의 축》, 《불량배국가》, 《테러국가》, 《목적의 전조기지》로 악의에 차서 험뜯으며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막탈하게 가로막아왔다. 바로 얼마전 케리 미국무장관을 피하며 우리 민족의 들끓는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은것도 미국이며 1991년 《북남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 도발적인

리영환: 오늘날 미국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어찌보면 불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기자: 지금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파괴하기 위해 남조선에 최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는 한편 북침책략적인 움직임까지 벌리고있다.

리영환: 오늘날 미국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어찌보면 불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지난 시기 악명높은 북침책략연습이었던 《림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1970년대

부터 미국이 벌려온 《림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그 후 《련합전시증언연습》으로, 다시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으로 명칭만 바뀌었다.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역시 1986년부터 미국이 해마다 감행해온 대규모의 침략적인 핵공격작전연습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북침예비전쟁,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발광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은 명백히 북남사이의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참화의 불길에 불어넣으려는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행위이다.

이 땅의 평화는 온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만 지켜낼수 있다. 평화없이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도 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도 기대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미국의 간섭과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굳게 단합할 때 조국통일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공화국의 전략군부대들은 화력발단위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공화국의 영토에서 로켓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를 두고 《의도적인 긴장조성》이니, 《도발》이니,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니 하면서 마치 큰일이나 난듯이 법석대고있다.

무지와 편견에 물젖은 미국의 상투적인 또 하나의 반공화국도발이라 평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에 공화국의 군대가 로켓을 발사한것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미싸일을 개발하여 자기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사연습을 하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상식이다.

더구나 세계에서 해마다 각이한 종류의 미싸일을 제1차로 많이 발사하는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난해 5월에도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의 발사시험을 거어이 강행하였다.

그런데 저들의 미싸일발사는 물론 다른 나라들의 미싸일발사훈련에 대해서도 조금도 반성이 없던 미국이 오직 공화국의 정상적인 로켓발사를 두고 이

리거져러공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 론리인가.

도발은 오히려 미국이 하고있다. 미국이 주동이 되어 공화국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바로 악랄한 반공화국도발이며 미정계의 어중이며중이들이 그 누구를 《악의 나라》로 함부로 험뜯는것이 바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공화국도발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로켓발사훈련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평화수호를 위한 주권국가의 정당당한 자위적권리행위이다.

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전에 제 손에 묻은 때를 보라고 했다.

미국의 《도발》 라령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저들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탄대로 돌려세우고 조선반도의 회장을 쾌대로 격화시켜 북침전쟁도발의 기회를 만들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공화국의 정당당한 조치는 누구도 시비할수 없고 막을수도 없다. 미국은 사실대로 보고 말하는 법부터 배우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철호

## 미국은 조선통일의 방해자

지난 며칠간 공화국군대는 정해진 훈련계획에 따라 몇 차례의 로켓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공화국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다종다형의 첨단로켓트들의 발사훈련은 미국의 도발적인 반공화국전쟁책동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있던 공화국의 천만군민과 정의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의 식에 물젖은 미국은 이에 대해 《저강도도발》,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라는 어이없는 제변을 늘어놓으며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대고있다.

더놓고 말하여 미국이 공화국의 로켓발사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뉘오 하면서 야단을 떨 제변이나 있는가.

멀리갈것도 없이 미국은 북남사이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벌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6일까지 공화국을 겨냥한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계속하여 수십만의 침략 무력과 미제7함대의 기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현대적인 전쟁장비들의 참가하여 남조선에서 대규모 《독수리》 북침합동전쟁연습이 벌어지게 된다.

이 전쟁연습들에서 공화국의 심장부를 노린 《맞춤형 핵억제전략》을 실현을 가상하여 적용한다는것을 미국은 내놓고 떠들고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자기의 령공, 자기의 령해, 자기의 령토에서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진행한 정당당한 공화국의 자주적로켓발사에 대해 약점을 돌리고있으니 이야말로 달보고 개 짖는다는 식의 황당한 트집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때 자기 령토, 자기 령해에서 자위를 위해 발사한 몇발의 로켓트가 위험한가, 수십만의 병력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전쟁장비들이 투입되어 공화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위험한가.

미국이 남의 땅에까지 기여들어 벌리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이고 진짜 도발이며 강도적위협이다.

미국이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활동을 구실로 침략전쟁연습의 도수를 높이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에 매달린다면 그보다 더 쓸개빠진 처사는 없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시 가장 위력한 공격형로켓트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리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는 조선분렬정책의 다른 말이다.

기자: 지금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파괴하기 위해 남조선에 최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는 한편 북침책략적인 움직임까지 벌리고있다.

리영환: 오늘날 미국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어찌보면 불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지난 시기 악명높은 북침책략연습이었던 《림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1970년대

미국은 입을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재미동포언론인이 주장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 미국은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이랑크, 아르가니스탄, 리비아 등 중동나라들을 침략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도 거짓말로 변명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3일에는 핵잠수함 《콜럼부스》 호를 합동군사연습에 참가시키기 위해 남조선의 부산에 입항시켜 전쟁위기를 조장하면서도 《북의 비핵화》를 떠들고있다. 이 얼마나 기만적인 자세인가.

같은 남조선당국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외세우선이 아니라 민족우선의 립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단 한치의 편차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정해진 목표수역에 도달한 우리의 로켓트들 자랑스럽다

준엄높은 선군조선의 위력

하나 때를 만난듯 정정당한 우리의 발사훈련에 《도발》과 《위협》의 모자를 씌워 악랄하게 험뜯는자들이 있다

우리의 자주권을 비방하는자들이 있다

보라, 누구인가 제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제 바다도 아닌 남의 바다에 핵잠수함을 들이밀어 핵전쟁연습에 미쳐달뿔는자들

홀려간 역사를 돌이켜라

그것은 바로 미국 불지른 놈이 불이야 하듯 그 누구의 《도발》을 떠들고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드는 그 께변 밝은 이 세상에 통하리라 망상하는 그 생각조차 가소롭다

누워 침벨기란 말이 있다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거짓과 날조로 정의를 말살하고 세상을 속여보려는 그 악습 특출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하리

두말달라 더이상 공화국의 자주적권리를 모욕하고 훼손시킨다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의 분위기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악담으로 찬물을 끼얹는다면 절단코 용서치 않으리라

## 미국은 똑똑히 알라

리철준

날아올랐다 대지를 박차고 하늘높이 솟구쳐올랐다 우리의 로켓트들 선군조선의 자주권을 시위하며

단 한치의 편차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정해진 목표수역에 도달한 우리의 로켓트들 자랑스럽다

준엄높은 선군조선의 위력

하나 때를 만난듯 정정당한 우리의 발사훈련에 《도발》과 《위협》의 모자를 씌워 악랄하게 험뜯는자들이 있다

우리의 자주권을 비방하는자들이 있다

보라, 누구인가 제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제 바다도 아닌 남의 바다에 핵잠수함을 들이밀어 핵전쟁연습에 미쳐달뿔는자들

홀려간 역사를 돌이켜라

## 《서면》호와 《콜럼부스》호

봄을 맞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산이나 강으로 쏠리게 되는 모양이다.

하루일을 마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대동강변을 따라 저녁산책의 길을 걸고있을 때였다. 총성의 다리주변의 유보도를 거닐던 나는 문득 마주오는 청년대학생들의 열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미국이 아무리 날뛰어도 《서면》 호의 신세를 면할수 없지.》

《아무렴! 험내 그놈의 격침비는 또 어디다 세운다!?!》

우이여 우리는 통쾌한 웃음소리...

때없이 발동하게 되는것이 기자의 호기심이다.

알고보니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인 그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위해 최근 남조선의 부산에 기여든 미핵잠수함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던것이다.

《서면》 호와 미핵잠수함. 단순한 생각에 참여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대화였다.

《서면》 호로 말하면 4문의 대포와 중기기관과 돛을 겸용하고 추진기까지 달린 19세기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무장함선이었다.

1866년 7월 조선의 해역에 침입하여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세상에 맞설

대상이 없는것처럼 놀아대며 비합리적 정략과 수심측량을 하여 못해 부러자들을 통용하고 인민들을 마구 살해하거나 람치하는 만행을 감행하던 《서면》 호는 침략자들의 오만무례한 행위에 격분한 평양군민들의 결사항전에 의해 마침내 불에 타 대동강에 침박하고 말았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150년 가까이 흘러갔고 세상은 많이도 변했다.

하지만 세월과 더불어 모 든것이 변하고 바뀌어도 한 가지만은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이다.

미국의 핵잠수함 《콜럼부스》 호 역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었다는 군사장비와 기술을 자랑하고있다.

이런 잠수함이 또다시 남조선의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공화국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다. 대동강의 푸른 물처럼 순결무구하고 깨끗한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잠수함까지 들이밀며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을 거어다시 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들뜨우려고 발광하고있다.

라민족의 고통과 재난에서 재미를 느끼는 미국이다.

그렇게 미국은 라민족을 희생시키며 살아왔고 우리 민족에게도 세기를 이어 재난과 불행을 강요하고있다.

침략의 불꽃을 쏘고 부산항에 기여든 핵잠수함 《콜럼부스》 호는 현대판 《서면》 호의 다른것이 아니다.

발결음은 어느덧 《서면》 호 격침기념비에 이르렀다.

이 격침비를 다시 보느라니 대양건너 미국이아말로 조선인민의 세기를 이어온 철천지원수이며 이 침략의 무리들에게는 오직 수치와 죽음만이 차례질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그렇다. 미국이 아무리 현대적인 전쟁장비와 살륙수단들로 공화국을 어찌보려고 해도 정의에 불타고 애국에 용맹한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이 강토를 반드시 수호하고야말것이다.

나히 이런 생각을 확증이나 하듯 저녁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대동강가로 한편의 노래가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행복담친 강가에 포성이 울면/우리는 싸움길 떠나가리라/대동강물 가득히 야전물통에/소중하게 넣고서 떠나가리라/아- 대동강아 너를 지켜싸우리

본사기자 박철남

##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절면피한 《도발》 라령

미국이 우리 군대의 정정당한 자위적인 로켓트 발사훈련을 두고 그 무슨 《저강도도발》이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요 뉘오 하리 악의에 차 험뜯고 못되게 놀아대고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쏘올리고 미국 역시 수많은 미싸일시험을 했을뿐아니라 얼마전에는 남조선에서 핵잠수함까지 들이밀었다.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 우리의 령토를 위주로 하여 진행한 로켓트발사훈련이 《도발》이라면 남조선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벌려놓고있는 미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로켓트발사훈련에 대해

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며 《도발》 라령을 늘어놓아야 그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미국은 세기를 이어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꿰어넣치는 미국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지도원 김경일

우리가 단거리로켓 몇발 쏘는것을 두고 법석 떠드는 미국인인데 우리가 더 큰것을 쏜다고 하면 까무라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며 《도발》이니 뉘니 하며 앵무새처럼 놀아대봤자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저들의 체면이나 깎이지 않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형직시범대학교원 김학성

《서면》이라고 걸고드는 절면피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도발》 라령에 뺨소름 금할수 없다.

원래 미국족속들이라는것이 절면피하기 그지없는 족속들이다. 제 버릇 못준다고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하면서 도 낚새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무슨 《자유수호》요, 《반대로》요 하는 께변아

우리의 자위적인 로켓트발사에 대해 불맛은 송아지마냥 날뛰며 《도발》이요 뉘오 하는 미국의 추태는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속담그대로이다.

남의 땅에 핵잠수까지 끌고와 북침물장난소동을 벌리면서도 털끝만 한 의식도 없이 오히려 평화적인 공화국을 감히 험뜯는 미국이야말로 파렴치한 강도의 나라이다.

세계가 보는 악의 나라는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사악한 곳》, 《악의 나라》로 험뜯고있다.

도대체 악이 무슨 말인지 알거나 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조선말사전에는 악이란 도덕적으로 못되고 나쁘며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초고층 아파트에는 실업자, 집 없는 방랑자들이 수두룩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온갖 국가적책택을 받으며 북반을 삶을 보태고있다.

내가 사는 창전거리도 평양시 한복판의 제일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거리로서 이곳의 현대적인 고층상림집들에서는 로동자, 사무인

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들이 살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시령스키장 등 도처에 꾸러진 인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들에서 기쁨과 생활의 량만을 꽃피워가고있는것도 인민이다.

그런데 이런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나라를 《악의 나라》라고 험뜯고있으니 적대시제관념이 골수에 찬 비방증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험뜯도 겹다고 하는 미국, 살인과 강도와 같은 무서운 범죄들이 꼬리를 물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수 없는 나라. 다른 나라들에 가지 침략과 간섭의 마수를 뻗쳐 짓밟고 죽이고 하는 미국이야말로 애당초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악의 나라이다.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35인민반 리성희



미 핵잠수함의 입항을 규탄

남조선단체가 항의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4일 서울의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하고 미제침략군 핵잠수함의 부산입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3일 미해군 7함대소속 핵잠수함인 《콜럼부스》 호가 기함인 《블루

남조선과 미국이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리는 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하고 공격무기들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남북사이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세계 최대급의 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것도 모자라 핵전쟁무기까지 투입하며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 이역땅에 흩어진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경모의 정 (2)

우리가 재중조선경제인원협회 김승걸동포가정을 찾은 것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되는 경축행사를 하루 앞둔 2월 11일이었다.

우리가 집안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광명성절경축행사장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에 드립 향기로 온 꽃바구니를 정히 꾸미고있었다.

김승걸동포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방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제가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본것은 1982년 4월 수령님탄생 7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때에였습니다. 지금도 영광의 그날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 뜻잇을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은 깊은 감회에 젖어있었다.

20대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사업하던 그는 어느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준비를 할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비록 예술적소질은 높지 못했지만 그는 여러 동포들과 함께 공연연습에 달라붙었다.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수령님의 탄생을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하나의 일념을 안고 낮이고밤이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공연종목을 안고 그들은 평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글썽 저희들의 그 소박한 공연을 김일성주석님께서 보아주시길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날 위대한 주석님께서 저희들이 준비한 설화와 합창을 친히 보아주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습니다. 지금도 영광의 그날 이어 그는 걱정의 그날

아버이수령님앞에서 불렀던 흥모의 노래를 조용히 부르기 시작하였다.

젊은신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을 력사의 땅 길림에 모시고 사는 우리

200만 재중동포 축원의 마음안고 중국땅 곳곳에서 달려왔어요

...

깊은 감동에 젖어있는 우리에게 그의 안내 김승걸동포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저의 남편은 원래 말이 적고 또 별치 않은 일에도 신경을 내는 그런 메마른 성격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석님을 만나뵈고는 다음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항상 웃고 떠들며 사업에 얼마나 열정적이던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인생의 참된 삶을 되찾은 그는 그후 제2차, 제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련이어 어버이수령님을 만

나뵈는 크나큰 행운을 받아안은 그는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남경국립대학을 졸업한 딸 김춘희동포와 함께 금수봉국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나날이 개화발전하는 공화국의 주체미술을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널리 선전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태양의 모습을 늘 가슴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마음 다 바쳐가겠습니다.》

본사기자 김화명

이 나날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은



김승걸동포(가운데)가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자랑스럽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벽한 현실을 직접 보면서 대를 이어 위인복을 누리며 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주제103(2014)년 1월 1일 첫 아침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가 삼가 인사를 드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었다고 한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어버이주석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늘 가슴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마음 다 바쳐가겠습니다.》

본사기자 김화명

### 영구-노민행렬차에서 만간 노포녀정들

우리 통일신보사회재단은 영구-노민행렬차에서 영구-노민행렬차에서 만간 노포녀정들을 만났다.

성도 같고 이들도 비슷하여 자매기간인가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지만 언니, 동생하며 지내오 감격하여 장군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날에 받아안은 감격이 너무도 커서인지 허상숙동포는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레이 언덕에서 진행되는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렇게 떠난 길입니다.》

지금 이 렬차엔 저희들말고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이죠.》

《전 우리 재중총련에서 진행되는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하는데 정말이지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제가 조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 같은 심정이랄까 도

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습니.

저는 1992년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글썽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을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제 수없는 그 나날 저희들이 조국방문기간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따듯이 돌보아주고계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여 장군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날에 받아안은 감격이 너무도 커서인지 허상숙동포는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레이 언덕에서 진행되는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렇게 떠난 길입니다.》

지금 이 렬차엔 저희들말고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이죠.》

《전 우리 재중총련에서 진행되는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하는데 정말이지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고 떠들며 마음껏 즐기고 싶은 심정을 여겨할수가 없습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 또한 든든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해외공민련 영광과 긍지를 안고 우리 재중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본사기자

《특히 문수물놀이장이 마늘쫑이 어린이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그들과 함께 웃



허상숙, 허명숙동포(왼쪽으로부터)

봄을 맞은 요즘 공화국의 거리가리는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로 하여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도처에 선거장들이 꾸려지고 시간이 갈수록 경축의 분위기도 고조되고있다. 며칠전 내가 선거하게 될 선거분수에 제시된 선거자명부를 보고있는데 옆에서 나이 어린 처녀가 러치는 탄성이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에 내 이름도 있어요. 여길 보세요.》

나도 무심결에 수필 처녀의 손가락이 가닿는 곳을 보았다.

《번호 594번, 이름 현혜란, 생년월일 1997년 1월 23일》

《올해 17살인것을 보니 저 처녀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첫 선거인게로구나. 그래서 저리도 흥분되어있으리라.》

《그래, 너도 이제는 공화국국민이 되었으니 응당 투표를 해야지.》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나에게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는 처녀만이 아닌 이 나라 공민이라든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선거표!

이제 사람들을 그 선거표를 직접안고 자기들의 손으로 찍은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할것이다. 그 한장한

장의 선거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거기에선 크나큰 시대적무게가 실려있다.

이번 선거는 인민들의 꿈과 리상이 하나를 현실로 꽃피우고있는 격동의 환경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새로 나온 노래 《조국찬가》에도 있지만 공화국은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이며 약속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 선거표의 무게

실현되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꽃피우시려 현지도의 끊임없는 낮과 밤을 보내고계신다.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불꽃튀는 건설장을 낮에도 찾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찾고 또 찾으시었고 어느 한기마흔런장을 찾으시려는 몸소 말을 달리시며 주로의 상태까지 가능해보시며 인민을 위한 승마장으로 개건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런 하늘같은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공화국에서는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온화과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 련이어 일떠서고 전편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이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에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다시금 보게 될것이다.

김준경

하기에 인민들은 자기들의 생명이요 생활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심장의 격정을 터치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끄시는 공화국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고마운 조국을 더욱 빛내기 위해 누구나 다들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선거날을 기다리고있다.

그러니 어느 누구인들 선거표를 가볍게 받아안으수 있겠는가. 그 선거표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없이 신뢰하며 받드는 천만국민의 심장의 무게가 담겨져있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다. 오늘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인민적정성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온 사회주의, 천만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승리와 번영의 로정을 수놓아온 사회주의

3.8절후수령절을 맞이할때면 주제101(2012)년 3.8절날의 광경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녀성들과 그 남편들을 경축음악회에 불러주시어 3.8절후수령절을 맞는 우리 녀성들을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었다. 사회사업을 하는 녀성들의 뒤바라지를 하는 남편들의 수고까지 일일이 헤아려주시는 그의 다심한 사랑의 축복까지 받아안고보니 우리 녀성들이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분에 넘쳐 온밤잠을 이룰수 없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천덕꾸러기의 딸인 내가 받아안기에 너무도 가슴벅찬 것이었다. 망국의 세월 막별이군으로 천대와 멸시속에 시달리던 나의 아버지를 해방후 비로소 사랑다운 대접을 받으며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하기에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한없이 고마운 제도를 지켜 한복속 서슴없이 바치었던것이였다.

지난날 민머느리로 팔려온 나의 어머니 역시 낮고 기

가 공화국의 사회주의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의의 근본특징이 있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이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 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정성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사회정치적들도 애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사회주의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존엄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인으로 되고 전체 인민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아름다운 생활을 꽃피워나가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것이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된 드림같은 신념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또한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전면적으로 꽃피워주는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세워진 사회제도와 제정된 법률도 각이하지만 공화국에서는 같이 사회제도도, 국

가의 모든 법률도 인민중심, 인민사랑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나라였다.

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은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인민적인 정치의 일관한 요구이다. 조국보위의 총대를 틀어쥔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용떨치고 일군들이 인민의 시중꾼, 인민의 복무자로 되고있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에서는 지금 인민생활향상

을 위한 창조와 건설이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해에 사회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며 이어 올해에도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이런 모든 꿈이 실현되어 이 땅위에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날은 멀지 않았다.

하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 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 위수절세위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고마운 제도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갈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자영성

## 수기 천덕꾸러기의 딸이 대의원으로

육자도 모르는 시골녀인데 불과하였지만 나라에서는 우리 가정을 전사자가족으로 우대하고 보조금까지 주며 우리 네형제를 공부시켜 내세워주었다.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일을 더 많이 하여 하늘같은 나라의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늘 당부하곤 하였다.

세상에 돌도 없는 전반적 무료교육제의 혜택속에 배움의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며 자라나 19살에 교원생활을 시작한 나는 후대들을 위해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하고 또 일하였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장경소학교 교장사업을 맡았을 때 나에게 힘을 주고 신심과 용기를 주며 걸음걸이를 손잡아 이끌어주고 내세워준것은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학교꾸러기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 교수방법을 탐구하며 교수교양을 아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기 위한 과외활동소조운영, 장난이 세한 연령기의 아이들

을 전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기 위한 단추와 바느질, 학용품 등을 넣어두는 《보물함》 만들기, 학생들간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차던치게 하기 위한 《미풍일지》 운영 등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어 10수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교수방식학회를 진행하도록 하여준 국가의 배려를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교육자로서 응답할 일을 한나에게 수령님의 존함이 모서진 시계를 소장하도록 해주시고 국가적인 대회에서 대표로 불러주시었으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묵을 집은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었다.

이런 뜨거

운 어버이사랑이 있어 나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1기, 제12기 대의원으로, 인민교원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그 나날 분에 넘치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소학교학생들의 특색에 맞게 지적교육을 강화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가

고 토론을 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진정 녀성들의 크지 않은 위훈도 높이 내세워주고 세상에 빛내주는 어머니 우리 조국이야말로 참다운 녀성중심의 나라이고 그속에서 사는 우리 녀성들처럼 복받은 녀성들이었다.

나는 한없이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영원히 운명을 맡기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후대교육사업에 있는 힘껏 재능을 다 바쳐나갔겠다.

장경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허정숙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들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호주 제72호부녀선거위원회에서-





